

# 네이버, 이커머스 영역 무한 확장... 매출 26兆·시장 1위

높은 적립률, 서비스 간 연계 혜택 협업 통해 배송·결제 고도화 증권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검색 포털로 시작한 네이버가 이커머스(온라인 쇼핑) 영역을 무한 확장하며 가치를 높이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강력한 네이버 플랫폼을 무기로 결제부터 배송에 이르는 쇼핑의 기본적인 과정부터 높은 적립률과 네이버 서비스 간 연계 혜택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 거래액은 2019년 20조원을 넘긴데 이어 지난해에는 26조원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1위 사업자다.

### ◆네이버 이커머스 가치 '재조명'

최근에는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의 기업가치가 30조~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덩달아 네이버 이커머스의 가치까지 재평가 받고 있다. 네이버쇼핑이 쿠팡보다 월등한 고객 수와 거래액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시가총액이 56조원에 불과하다며 향후 네이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결제자 수는 2000만명, 거래액은 26조



쇼핑라이브 전용 스튜디오.

네이버

8000억원 규모다. 쿠팡의 활성 고객 수는 1485만명, 거래액은 20조9000억원 수준이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61조원 규모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쇼핑과 쿠팡의 점유율은 각각 17%와 13%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네이버의 목표가를 50만원으로 상향하는 추세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네이버 이커머스 사업은 높은 포인트 적립률, 웹툰·뮤직 등 자사 콘텐츠와의 연계 강화, 판매자 매출 등을 강점으로 확고한 생태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쿠팡과 비교해 네이버가 절대 부족하지 않기에 목표시총을 80조원으로 제시하는 만큼 목표주가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

했다. 쇼핑과 금융 간 시너지 강화도 높게 평가된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페이와 소액 후불 결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이용자를 위한 혜택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까지 후불 결제를 지원할 전망이다.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는 판매자 대출에 이어 구매자를 위한 신용결제까지 지원하면서 네이버쇼핑에 대한 충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협업 통해 공급-배송-결제 구조 갖춰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경쟁력이 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배송 및 유통 전문 기

업과 협업하는 전략을 통해 제품 공급부터 배송, 결제까지 완벽한 구조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우선, 네이버는 빠른배송이 중요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과 지분 교환을 통해 협력에 나섰다. 현재 양사는 '지정일 배송'과 '오늘 도착' 등 빠른 배송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또한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와 재고 일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만나 협업을 논의했다. 온·오프라인 유통 1위 업체 간 만남이다.

네이버는 신세계그룹을 통해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받고, 신세계그룹은 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시너지를 도모할 전망이다.

이달 초에는 현대카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전용 신용카드(PLCC)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PLCC는 신용카드사와 파트너사가 전사적 협력 관계를 맺고 기획, 브랜딩, 운영, 마케팅 등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하는 신용카드다. 개발되는 카드를 통해 콘텐츠와 커머스 영역에서 이용자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도 두각

성장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도 네이버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라이브 쇼핑은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대화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방송 형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라이브 판매가 가능해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정식 론칭한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누적 시청부 1억 뷰를 돌파했고, 쇼핑라이브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 역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네이버는 쇼핑라이브 수수료를 매출의 3% 수준으로 책정했다.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등장하는 상황 속 네이버는 예능과 라이브 커머스를 결합한 '예능형 쇼핑라이브 콘텐트' 등도 새롭게 선보이며,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방송을 진행하는 판매자가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SME)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SME를 위한 쇼핑라이브 전용 스튜디오를 오픈하며 SME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에 나섰다. 11개의 라이브 스튜디오 공간과 설비를 갖췄으며, SME들은 최신 스마트폰, 조명, 모니터, 집필 등 필요한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도 상주하고 있어 일대일 코칭도 가능하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연임기간 1년 제한... '후계자 양성' 최우선 과제 부상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재추대**  
지배구조 내부규정 만 70세 제한 부회장 3인, 사법리스크 골머리 "무거운 책임감... 조직안정화 헌신"

김정태 하나금융회장(69)의 재연임이 확정됐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정에 따르면 회장의 나이는 만 70세를 넘길 수 없다. 만 69세인 김회장의 연임기간은 1년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회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정태 현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김 회장은 다음 달 개최되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임기 1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김 회장의 연임은 코로나19 상황과 후임 후보자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하나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사상 최대(2조6372억원)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하나금융은 김 회장의 세 번째 임기(2018~2020년)동안 2조원 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만 놓고 봐도 전년 같은 기간(3504억원)보다 52% 증가한 5328억원을 기록했다.

김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 극복과 그룹의 조직안정화에 헌신하겠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원형사진) 김정태 하나금융그룹회장

다"고 말했다. **◆김정태 회장 만 69세... 1년안에 후계자 찾아야**

김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후계자 양성이다. 하나금융지배구조 내부규정에 따르면 회장의 나이는 만 70세를 넘길 수 없다. 만 69세의 김회장의 연임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 이유다. 이에 따라 1년안에 후계자 양성이란 과제가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후계자양성을 위해 함영주, 이진국, 이은형 3인 부회장 체

제를 통해 경쟁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이들 대부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함 부회장의 경우 현재 채용비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DLF 불안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뒤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진국 부회장은 비서에게 자신의 주식거래를 맡겼다가 선형 매매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법률 리스크를 안고 있다.

### ◆하은행장, 하나금융대표 교체

하나금융은 이날 그룹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5개 계열사의 CEO 후보추천을 마무리한다.

하나은행 신임 행장에는 박성호 하나은행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성호 부회장은 김 회장 체제에서도 인도네시아 법인 부회장과 IB서비스 자회사 하나아이앤에스(현 하나금융티아이)를 성공적으로 지내 글로벌과 디지털 사업역량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다.

하나금융투자에는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이 물망에 오른다. 이 부회장은 중국 최대 민영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그룹 총괄부회장과 베이징대 고문교수 등을 거쳤다. 해외네트워크가 워낙 좋고 중국 핵심금융권 인맥을 보유하고 있어 김 회장의 눈에 들었다는 평이다.

현 지성규 행장은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진국 대표는 주식 선형매매 의혹관련 법률리스크를 각각 안게 되면서 연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장경훈 하나카드사장과,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 오화경 하나저축은행장은 모두 연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나유리 기자 yu115@

**금융을 잘하는 신한금융 그룹의 신한카드**  
교육비+입사축하금 350만(경력자 우대)  
고객센터PDS(오토콜) 공채 2명  
"지능화 발전"으로 통화성공률 효과 UP

**지원자격:**  
- 신입 / 경력  
- 경력자우대(전직소득보장)  
**담당업무:**  
상담 동의한 고객에게 전화 상담업무  
**지원접수처:**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길11 더프라임빌딩 23층 신한 용산센터 2실

※ 근무시간: 10시~5시(주5일근무) ※

**FAQ**  
1. 상담업무를 해보지 않은데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한번은 처음입니다. 회사에 교육담당자와 매니저가 단계적으로 교육해드리고 소독중가를 최우선으로 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교육비 350만(경력자 우대)  
- 교육학성, 대학성 2지내 학자금(연4회)  
- 1~18개월차까지 정액급여지원  
- 매년 적립금 지급제도 운영  
3.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 1년차평균: 월200~250만원대  
- 2년차평균: 월300~400만원대  
- 상위명칭: 업계최고 고소득발생  
※ 수입은 내가 알고싶은 만큼 묻는 능력과 출습니다  
4. 다른 회사도 많은데 꼭 신한카드를 선택해야하는 이유는?  
신한카드 마케팅 동의고객 대상으로 보형상품을 통해 고객의 행복에 대한 가치를 판매하고 가치를 사는 일을 하며 성사율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인크루팅/육성 전문실장 : 임연정 (문자환영)  
**010-3043-3574**

## LG, 계열사 내 여성 사외이사 확대

주중서 여성 사외이사 선임 안전 상정 LG 계열사들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이사회 다양성을 제고한다. LG는 올 3월 LG하우시스와 지투

알, LG전자와 LG유플러스 및 ㈜LG가 이사회를 열고 주중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전을 상정한다고 25일 밝혔다. LG하우시스는 서수경 숙명여대 환

경디자인과 교수를 내정했다. 서 교수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 실내디자인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고부가 토탈 인테리어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려는 LG하우시스의 경영자문 역할을 하게된다. 지투알은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했

다. 2조원 미만 상장사로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LG는 내년 8월부터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앞장서 준수하고, 이사회에 전문성을 갖춘 여성 사외이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김재욱 기자 juk@